

2009년 07월 14일 (화) 22:47

韓-日간의 문화(文化)가교

(주)코마츠 전기의 '코마츠 아키오' 사장 vs (주)한스웰드 전재천 회장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와 문화활동을 중시하는 기업인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본의 코마츠 전기주식회사의 코마츠 아키오 사장, 그리고 한국의 (주)한스웰드의 전재천 회장이다.

(사진 좌/전재천 회장 중/코마츠 아키오 회장)



일본 코마츠 전기주식회사의 코마츠 아키오 사장은 이른바 '문화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나눔의 철학으로 이른바 세계평화'을 강력히 주장한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문화교류.봉사활동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먼저 모범을 보이듯, 양국간 문화봉사활동의 밀착을 보여야 합니다"

일본의 인간.자연.과학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있는 고마츠.아키오 씨는 동해와 일본해 라는 명칭을 가지고 양국이 대립하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운데 바다 라는 뜻으로 '중해(中海)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주장한다.

또, 아키오 사장은 知韓파 인사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신봉하는 인사이다. 그는 한국.중국.일본간의 새로운 공생(共生)문화를 제안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간의 한때 어두웠던 역사를 새로운 21세기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해온 知韓.기업인이다.

또 천안 독립기념관에 일본인으로서 유일하게 일본 전후세대의 속죄하는 마음으로, 100만엔을 헌금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서 그는 '城을 축조하자!' 라는 영화제작을 후원, 고향인 시마네 현 마츠 에 시로부터 많은존경을 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화제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부흥시킨다' 는 목표로 영화제작에 후원을 해왔다는 것.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한.중.일의 역사.문화.철학을 주제로 국제관광단지를 기획 하고 있는 (주)한스웰드의 전재천 회장 역시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문화기업인들중의 하나이다.

그는 조선 왕조 정조대왕때를 가리켜, 이른바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고 말한다.

지난달 코마츠 아키오 사장의 초청으로 영화시사회 참석차 일본에 초청한 그는 시사회 전야제의 축사를 통해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부가가치보다 역사나 문화에 대한 컨셉(Concept)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면서 문화와 인성(人性)을 중시하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개성, 한성(漢陽), 화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곳입니다. 개성이나 한양의 유명 세에 가려 화성(華城)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한것이 마음 아픕니다"

전 회장이 일생의 야심작으로 기획하는 부분은 화성 국제관광단지내 ' 센터'

중국, 한국, 일본의 주요 문화. 역사를 비롯, 정신문화였던 철학을 망라한 국제문화관 광명소를 만드는 것이다.

전 회장은 '국내 위락단지를 보다보면, 너무 엔터테인먼트쪽으로 기운 감이 없지않아 있다' 면서 화성의 문사철 센터는 아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 체험장이 되는 동시에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암 김순식 선생)



한편, 전 회장은 석회를 사용한 프레스코 화법을 도자기에 국내 처음으로 적용한 도예미술가 청암 김순식 선생을 후원, 올가을 서울에서 도예 초대전도 준비하고 있다.
 김순식 선생은 문화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유명 한국 도자기 공예가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대영박물관 한국관에는 그의 작품 '청룡도'가 전시되어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